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일주일 중 옛새는
세상과 씨름하면서
땅에서 이익을 얻어낸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영혼에 심은
영원의 씨앗을 보살핀다.
일주일 중 옛새는
세상을 다스리려 애쓰고,
이렛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날이다.



신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요!

[제 1독서] 사도 12, 1-11
 [화답송] 시편 34(33), 2-3, 4-5, 6-7, 8-9 (◎5- 참조)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송기는 사람! ◎

[제 2독서] 2티모 4, 6-8, 17-18
 [복음 환호송] 마태 16, 18 참조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복음] 마태 16, 13-19

성가	8시 미사	입당 291	봉헌 213 510	성체 156 152	파견 290
	11시 미사	입당 291	봉헌 213 510	성체 156 152	파견 29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도대축일(6월 29일)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순교자대축일(7월 6일)		연중 제15주일(7월 13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송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최다니엘(대연)	정프란치스코(일환)	김길베르토(광호)	이바오로(명국)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김엘플레다(수연)	정글라라(영희)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일등이 될 수 없는 이등들!

예전에 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A군과 B군은 한 대학을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A는 평범한 가정의 청년이었고 B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둘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했는데 늘 A가 일등을 했습니다. 어느 날 A는 졸업을 많이 남긴 시점에 학교를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A가 떠나자 일등자리는 B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들의 스승은 A가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서 난민들을 돌본다는 소문을 듣고는 찾아갔습니다.

A는 누가 봐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야 삶의 의미를 찾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A를 보고 난 후 스승은 B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승승장구했던 B는 꽤 이름이 알려졌었습니다. B는 자신을 찾아온 스승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는 집, 훌륭한 가문 출신 부인과 총명한 아이들을 자랑했습니다. B는 자신이 일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명성 있는 로열패밀리가 많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스승은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을 이룬 제자를 축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집을 나오면서 스승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B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A를 이길 수가 없겠군!”

사람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다 보면 B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과 인생을 진실하게 찾기보다 남들이 쓴 스토리나 환상에 부응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부와 명예, 권력의 크기입니다. 취약한 자아를 지닌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빈약한 내면을 외적인 환상으로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성공도 일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 소비사회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통해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떤 차를 타고,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과 지위를 드러내고 미래에 성취하게 될 가능성까지 예측합니다.

소비사회에서 열등한 소비자들은 지위 상실과 계급강등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소비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한 때 과도한 소비는 못 배우고 천박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는 재투자로 이해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소비를 성공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다

움, 헌신, 소박함,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들은 점점 우리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소비지상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부수적 존재로 낙인 찍히고 사회 공적 자산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훌륭한 가치로 여겨졌던 소박, 가난 같은 수행적 덕목은 이제 남루하다 못해 명칭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타인과 자연에 대한 착취 위에 기생한다는 것이 기본상식이 된 오늘날, 소비사회에 훌륭하게 편입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오로 베드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성대하게 기억하는 이 두 위대한 영웅들의 삶 안에 현대인들이 자랑처럼 여기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움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단했고 불편했으며 때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두 성인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별이 된 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에 대해 확신과 지치지 않는 투신이 이들을 일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B같은 환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절대로 일등이 될 수 없다는 스승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병철 요셉 신부
인천교구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묘비명(墓碑銘)

우리 가톨릭교회의 양대 기둥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사도의 거룩
한 삶과 죽음은 우리 믿는 이들의 무궁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두 사도의 대축일 미사 때 부르는 다음 성가는 들을 때마다
늘 힘이 납니다. “교회의 반석 성 베드로와 선교의 주보 성
바오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시고 승리의 관을 받으셨도
다.” (「가톨릭성가」 291장 1절) 두 사도의 평생 삶을 요약하
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
한 두 사도의 파란만장한 삶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점이나 결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보십니다. 저는 어느 묘지를 방문하든 먼
저 살펴보는 게 묘비명입니다.

피정 지도를 할 때에는 묘비명을 써 보도록 권고합니다. 좌
우명과 직결되는 묘비명이지요. 이를 통해 한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 베드로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분명 “요한의 아들 시
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공동번역 요한 21, 16)였
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좌우명 삼아 순
교에 이르기까지 자나 깨나 주님 사랑에 전념했을 것이며, 묘
비명도 아마 이 말씀을 택했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좌우명이자 묘비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택해
드린다면 주저함 없이 오늘 제2독서 중, “나는 훌륭히 싸웠
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2티모 4,7)
라는 사도의 유언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어 제 좌우명이자 묘비명을 소개합니다. 올해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자작 고백시 중 일부입니다. 좀
길다 싶지만, 제 묘비명에는 다음 고백을 써 달라 부탁할 것
입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하느님 바다 향해 흐르는

강이 되어 살았습니다.
때로는 좁은 폭으로 또 넓은 폭으로
때로는 완만하게 또 격류로 흐르기도 하면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하느님 사랑의 강’ 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일일생(一日一生),
하루를 평생처럼,
처음처럼 살았습니다.
저에겐 하루하루가 영원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살았고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수철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말씀의 향기

내 안의 수치심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은 보통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공부하면서, 자신에게든 상대에게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이름 붙이자, 수치스러웠던 일생의 경험들이 하나둘씩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언니,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달고나를 해 먹다 손을 데어 ‘호’ 해 달라고 했는데, 위로는커녕 엄마는 따귀를 때렸습니다. 엄마에게 머리광부리고 싶어 했던 어린 저는 다시는 머리광을 부리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광도 받아 줄 수 없는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너스레를 떠는 저를 ‘떠드는 아이’라고 반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던 담임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수치심에 사로잡힌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회색빛 감정으로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아! 급하게 끄집어낸 수치심의 기억들이 이러한데,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기억의 상처들은 어떠할까요. 어느 정도 수치심의 상처에서 회복됐다고 자만했는데, 지금도 후들거리는 느낌과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걸 보면, 아직도 제 내면에 꽂혀 있는 수치심의 아픔들이 많은가 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의 느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참 좋다!’고 감탄하셨는데, 피조물인 제가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을 거스른 죄가 아닐까 하는 목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무서운 사실은,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심어 주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로 인해 제가 느낀 것 같은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혹하게 잔인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채기를 낸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제 앞에 도사리고 앉아 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나면,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주님 앞에, 그리고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합니다.

윤미숙 베로니카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자라는 생명력입니다.

글_조진섭 신부 / 그림_김윤경

가톨릭 전례

기도의 형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루카 #11:1).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세상 욕심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소리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가 그것입니다.

1) 소리 기도

- 소리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스승이 침묵 중에 하시는 기도예 마음이 끌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소리 내어 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 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의 전례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복음서들은, 환희에 차서 성부를 찬양하신 것을 비롯해서, 겐세마니에서 비탄에 젖으시기까지, 개인 기도를 소리 높여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01항). -

소리 기도는 정해진 기도문을, 정해진 시간에 외워 바치는 기도 방식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소리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충실히 바침으로써 하루 생활을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조과(아침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점심 때나 저녁 때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만과(저녁기도)를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바침으로써 신앙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2) 묵상

묵상은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공공이 생각하는 기도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영성의 대가들이 쓴 글들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느님을 찾아 가는 구도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계시)은 자연 만물 안에도 있고, 인간 내면에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는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읽은 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공공이 헤아리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성경 묵상의 출발점은 성경이지만, 도달점은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 묵상하면,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다. 여기서 다른 한편의 책, 삶이라는 책이 펼쳐진다. 생각에서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706항).

* 관찰 #1 :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 관찰 #2 : 이제 눈을 돌려 나의 생활을 묵상합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 판단 :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생활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 실천 : 자연스럽게 실천거리를 찾게 됩니다.

3) 관상 기도

소리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이고, 묵상기도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관상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 관상기도의 목표입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말없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나 아가씨가 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이것이 관상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관상기도는 성체조배입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일상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 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709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6월 29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강루시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원용락	원프란치스코
	생	정베드로(병구)	찬미성가대
	생	유베드로/정베드로	유데레사
	생	신마태오(현규)	이요셉(건용)
	생	신마태오(현규)	심아브라함/사라
	생	박마리아(영자)	5구역
	생	박마리아(영자)	정아가다(청자)
7월 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박마리아(영자)	5구역
	생	정바오로(병구)가정	정분다
7월 2일 수	생	임루시아	박헬레나
7월 3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본당신부님	서데레사
	생	조마오로수녀님	서데레사
	생	박마리아(영자)	5구역
	생	이정우	전수산나
7월 4일 금	연	조마오로(동완)	서데레사
	연	이스테파노(상준)	서데레사
	연	메철투도린	서데레사
7월 5일 토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철투도안토니오	서데레사
	연	메철투도린	서데레사
	연	박토마스사도	박헬레나
	생	레지오단원들	꾸리아
	생	김대건안드레아(명환)	은총의어머니Pr.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103	180	-	283
헌금	\$627	\$989	-	\$1,616

< 교무금 > \$1,555

이영기(5-6) 정창희(6) 정일양(6) 서춘애(6)
조상호(4-7) 조덕행(5-6) 김영희(7) 이종규(3-6)

< 성소후원금 > \$220

정창희(6) 서춘애(6) 조덕행(3-6) 이종규(1-6)

< Bishop's Appeal > \$90

서춘애(11-12) 조덕행(3-6)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전숙희 데레사 맥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성시간 : 7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 ◆ 병자봉성체 : 7월 4일(금)
- ◆ 성모신심미사 : 7월 5일(토) 아침 7시 30분  
- 꾸리아 월례회
- ◆ 지속적인 성체 조배  
7월 4일(금) 저녁 9시부터 7월 5일(토) 아침 7시까지
- ◆ 7월부터 수요일, 금요일 아침미사는 대건회관 성체 조배실에서 거행합니다.
-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후보성인 축일 기념 걷기대회  
본당의 후보성인이신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축일을 맞아 걷기대회를 시행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7월 5일(토) 꾸리아 월례회 후  
장소 : Redwood Regional Park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구역장회의 : 6월 29일(오늘) 연도 후 107호실  
\* 사목회의 : 7월 6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진동호회 모임  
일시 : 6월 2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주제 : 인터넷에 사진 올리기
-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 레지오마리아에서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 주십시오.  
꾸리아 단장 김경년 베드로 510-693-0920

-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20 sibling discount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을 위하여 7월 6일 교중미사 후 카레(\$5)를 판매합니다.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21:5)  
강사 : 차동엽 로베르도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 연도 안내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윤순의 사비나 자매님의 오빠인 윤광의 바오로 형제님의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 ◆ 교육관 도서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사무실로 연락)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베드로 : 이성재, 임장만, 김현수, 정창희, 박진영, 소명환, 정병구, 김경년, 유경돈, 이기만
- \* 바오로 : 김종성, 이명국, 김복철, 이동춘, 정지문, 김민규, 조병국, 유한섭, 김광찬
- \* 토마스 사도 : 송인환, 이동식
- \* 대건안드레아 : 최민우, 김명환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300 \* 개강일 : 9월 6일